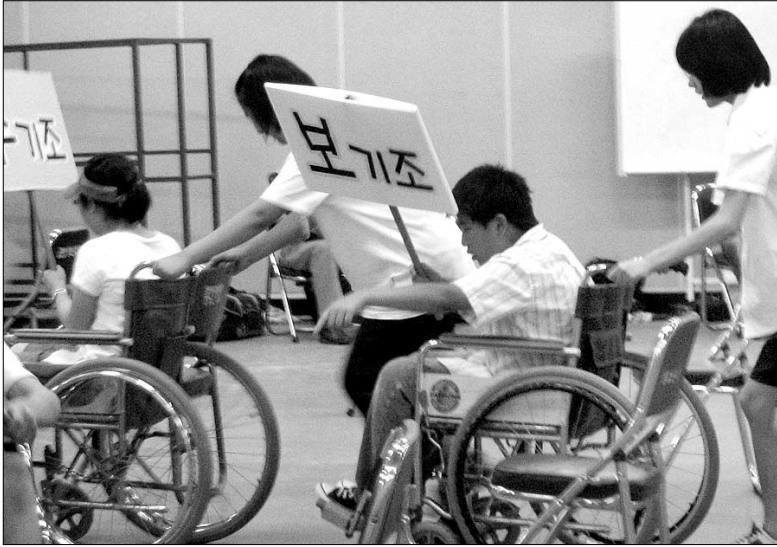


용호복지관,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마주보기'

“보고 느끼니 이해돼요”



장애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은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일반청소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모습.

8월 8일 오전 11시, 찌푸렸던 하늘이 흰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을 때 두 손을 마주 잡은 청소년들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고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 이들은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

곳까지 올라왔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마주보기' 통합 프로젝트는 남구 지역에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기관 3곳이 마음을 모아 함께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이 3년째 펼쳐는 장애와 비장

에 마주보기 통합 캠프에 가톨릭의 감만 복지관(관장 김선희 안나 수녀), 개신교의 남구종합복지관(관장 손광훈)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복지관 간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첫 단추를 끼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련원에 오르는 것이 프로그램 중의 일부일 정도로 장애·일반청소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가톨릭·개신교 복지관 함께 참여 장기자랑 즐기며 마음의 벽 허물어

기획된 이 행사에는 정신지체장애인 32명, 비장애 청소년 32명이 함께 참여했다. 함께 춤을 추는 시간. 이미 예비모임에서 한번 만난 짝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몸을 흔들며 더욱 더 친밀해지기 시작했다. 춤을 추는 사이, 다윈이와 민국이 시선을 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대열을 이탈하고 과실을 지르는 다윈이를 민국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춤을 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민국은 다윈이 손을 놓지 않았다. "다윈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민국은 "다윈

이가 제멋대로 행동해 힘들긴 하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바탕 춤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친구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물 풍선 던지기가 시작했다. 물 풍선이 날아다니고 물벼락을 맞으며 즐거워하는 청소년들 틈에서 지희와 상호 팀의 분위기가 상했다. 짝인 상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희가 투정을 부리자 상호도 짜증을 내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지희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여러개를 부리고 당황한 상호도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희의 맑고 순수한 마음은 화난 마음마저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물 풍선 놀이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호의 손을 끌어당기며 웃고 있었다.

대양공고 종교반에서 활동하며 복지관 봉사활동을 해온 상호는 "지희에게 같이 짜증을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휠체어 달리기, 요플레 먹이기, 사랑표 현하기 등 그룹별로 함께 하나의 과제를 완수하며 하루하루가 저물었다.

서로를 마주보며 마음을 나누었던 청소년들은 금련산 수련원에 오를 때처럼 두 손을 꼭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춘성 용호복지관 부관장은 "장애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비장애 청소년들에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아름다운 자연 마음껏 즐겨요

금정청소년수련원, 범어사 금강암서 초등생 산사체험

(재)범어청소년동네가 부산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금정청소년수련원(관장 정만)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1박 2일간의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연다.

8월 20일, 21일 양일간 범어사 산내 암자 금강암에서 열리는 이번 산사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20명만 신청을 받는다.

아직까지 자동차가 없어 걸어가야 하는 몇 안 되는 범어사 산내 암자 중의 하나인 금강암. 끔찍한 바위 사이로 난 길을 따

라 금강암으로 오르는 것부터가 산사체험의 시작이다. 참선과 스님과의 만남에 중점을 둔 이번 산사체험에는 사찰 예절, 참선 이론과 실수, 소원 등 만들기, 사성제, 스님과 차 마시기, 선제초, 금정산 숲 생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알뜰하게 구성돼 있다.

금정청소년수련원 관장 정만 스님은 "인터넷 문화, 도시문화 등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끼고 참선을 통해 평소에도 고요한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정서 안정되고 의젓해졌어요

청도 용산사 연꽃어린이집 다도학습 발표회

8월 10일 연꽃이 만개한 경북 청도 유호연지의 군자정에 청도 용산사 부설 사회복지재단 연꽃어린이집(원장 도명) 선재반 어린이 17명이 다도학습을 나왔다. 평소 원장 도명 스님에게 배운 다도 시연 모습을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선재반 어린이들이 찾장을 바로 놓자, 다동(茶童)이 나서 차를 따르고, 다식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넨다. 차를 받은 어린이들은 차의 색을 감상하고 차향과 차맛을 음미했

다. 차를 따르고 마시는 동안 어린이들은 차마시는 법, 차향과 맛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민호근 어머니 이재화씨(청도 원정리)는 "다도, 사찰문화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실생활에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명 스님은 "다도의 명상 수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인내심을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APEC 성공기원' 부산불교계 들쭉



질월월석이었던 8월 9일, 부산 삼광사는 질석예술제를 열어 가족사랑을 되새기고 APEC 성공기원을 기원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들이 부산을 찾게 되는 APEC 정상회의가 8월 10일 현재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가 APEC 정상회의의 체제로 돌입한 것을 비롯 불교

계에서도 APEC 성공기원을 기원하는 기도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10일 대웅전에서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백일기

도'를 임제했고 하루 전인 9일에는 대한 불교전대총 삼광사(주지 도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기원을 기원하는 질석예술제를 봉행했다.

또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교단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임인 '공동선 실천을 위한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여여선원(선원장 정여

범어사·삼광사 등서 기도회 질석제 관련 문화행사도

주관으로 11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APEC 성공 기도회와 광복 60주년 기념식을 함께 가졌다.

범어사 대웅전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비롯 APEC 기획단, 불교계 신행단체 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일기도 임제식은 천수경, 정법계진언, 사다라니, 지심경례공양제, 허남식 부산시장의 발원문, 대성 스님의 기원문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 반야심경 봉독으로 진행됐다. 특히 범어사 금여선원 유나 인각 스님을

비롯한 선방 수좌 스님들과 범어사 강원학인들도 기도에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대성 스님은 기원문에서 "부산 개항 이래 최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는 세계에 부산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불자들이 부산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중심에서 서서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힘을 모으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범어사와 함께 삼광사도 기도를 임제했으며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 기도에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삼광사(주지 도원) 특별무대에 마련된 질석예술제는 변지영 무용단의 '견우와 직녀'를 비롯 민중 고유의 명절인 질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춘향이과 이도령의 사랑이야기를 판소리와 오키나와를 사랑하는 앙상블 '오사양'의 합주,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창, 남성중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백양산 자락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대미를 장식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통도사 도서관 도서 확충 나서

7월 6일 상량식을 가진 통도사 불교도서관이 우리나라 불교도서관을 대표하는 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서 확충에 나섰다.

통도사 불교도서관은 2개의 동으로 건립되며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에게는 불서, 경전 등을 전하고, 양산 시민들에게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개관된다. 통도사 도서관은 인터넷 검색실, 불교교양도서실, 열람실 등을 갖추고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직접 '찾고' 눈으로 '보는' 도서관이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갖춰 사찰도서관 문화로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055)372-7009 천미희 기자

대구 불광사 만불전 기공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요)은 8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시작으로 만불전 건립불사를 봉행한다.

불광사 만불전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00평 규모로, 2006년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지상 1층에는 종무소와 공양실, 2층에는 시

민선방, 3층에는 불광불교대학과 신행단체 사무실, 문화센터가 마련되며, 4층에는 대법당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053) 656-6766 배지선 기자

구연동화반 수강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지원)이 전문가 격을 취득반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과정은 구연동화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2개월 과정의 구연동화반과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3개월 과정의 레크리에이션반.

9월부터 개강되는 구연동화반의 경우, 불교 구연동화가 전문인 실정에서 불교 구연동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풍부한 불교설화나 부처님 전생담 등을 소재로 한 불교 구연동화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구연동화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박서영 씨가 강의를 맡는다.

어린이보호 지도교사, 교사대학 졸업생,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불자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화·수요일 저녁 7-9시 대한불교교사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이 열린다. 마감은 8월 31일까지. (051)852-0852 천미희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80%이상)	· 건강진단서 1통 (영문, 대사관 지정병원)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균3.5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선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5년 9월 1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25-6798167 / 팩스: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02-511-2026~7, 1080 / 팩스: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불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헤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 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정 일행 방문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橋 分校設立,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원 교직원 방문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錕,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문
- 1999년 9월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문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 11일-11월 17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 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외사고시 7명 합격
- 2005년 중국 국가외사고시 10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국총장 손혜인